

민 요

차 례

- | | |
|-------------------|---------------------------|
| 1. 불리는 소리 | 13. 여름에 먹감을 때 몸 말리는 소리 |
| 2. 검질 매는 소리 | 14. 이빨 빠진 아이 놀릴 때 |
| 3. 타작소리 | 15. 빠진 이빨 지붕위로 던질 때 |
| 5. 창부타령 | 16. 아픈애기 달래는 소리 (배 쓸어주면서) |
| 4. ㄱ래질 타령 | 17. 서우제 소리 (신방소리) |
| 6. 청춘가 | 18. 아리랑 |
| 7. 해녀노래 | 19. 양산도 |
| 8. 뱃놀이 노래 | 20. 애기 재우는 노래1 |
| 9. 느영나영 | 21. 애기 재우는 노래 2 |
| 10. 오돌또기 | 22. 애기 재우는 소리 3 |
| 11. 매미(왕자리) 잡는 소리 | 23. 장원질소리 |
| 12. 비 그치기를 바라는 소리 | |

제주의 민요는 대체적으로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나뉜다. 제주의 민요는 지역의 특수성(농업과 수산업이 주인 생활모습)으로 인해 노동요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격으로 분류하기 힘든 민요도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민요에 비해 노래하는 데 남과 여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본격적인 조사를 하면서 20여 개의 민요를 채록, 전사하였다. 제보자들을 우리가 묵었던 숙소(청소년수련원)로 모셔 채록하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르는가(불렀는가)'에 기준을 두어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노동요: 밭 불리는 소리, 검질 매는 소리, 마당질 타작소리, ㄱ래질 타령(맷돌 가는 노래), 해녀 노래, 뱃놀이, 장원질 소리(가마 매며 부르는 노래), 애기 재우는 소리
- 의식요: 비 그치기를 바라는 소리, 빠진 이 지붕 위로 던질 때, 아픈 애기달래는 소리, 서우제 소리
- 유희요: 창부타령, 청춘가, 느영나영, 오돌또기, 매미잡는 소리, 이빨 빠진 아이 놀릴 때, 여름에 떡감을 때 몸 말리는 소리

신흥리에서 조사한 민요는 기본적인 첫 어구나 후렴구만 같고, 나머지는 확실히 정해진 가사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창자가 새로운 가사를 붙이며 노래한 게 많았다. 예를 들어 ‘애기 재우는 소리’는 ‘자랑자랑’ 등의 어구만 같고 나머지는 아기와 창자(어머니 또는 할머니 등의 여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심방이 부르는 의식요 또한, 기원하는 사람의 상황과 기원하는 마음을 무당 등의 무속인이 그때그때 창작하여 부른다고 하였다.

반면, 가사는 비슷하나 불리는 목적에 의해 박자가 달라지는 민요도 존재하였다. ‘아웨기 소리’, ‘검질 매는 소리’, ‘청춘가’, ‘양산도’가 이러한 예이다.

1. 불리는 소리

어~취 어르러~~어러러~러러러~~어혈~덜덜(소가 말을 안 들을 때, 소를 빨리 몰 때)

어~취 어르러……

요놈에 몰들아 빨리빨리 걸어그네

흔저 오늘 저물어 별령 다 별영 가살건디
어~어러러~어러~~덜덜.....

<제보자: 김두순(70)>

2. 검질 매는 소리

검질~을 매에~는 꼴~르는 밧티 (아~아아 야양 에헤에~양 에하요)
이어차 소리에 검~질을 매~자 (아~아아 야양 에헤에~양 에헤요)
요놈이~ 검~질을 언제면 다 매애나 아 아아양 에에양 에에요
검질 꼴 널븐 밧에 아~아아양 에양 아양 아야 에양 에헤에요
앞명에랑 들으나 오라 아~아양 에양앵헤헤요
뒷명에랑 나으나 가라 아 아아아양 에양 에헤에요.....

<제보자: 김임화(70세), 강복률(63세)>

‘아웨기 소리’는 검질매는 소리와 다르다. 이와 비슷한 노래로 서촌쪽에 서 심방이 굿을 할 때 ‘서우제’라 하기도 한다. 이들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언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검질매는 소리를 제주시에서는 서우제 소리라고 하지만 신흥리에서는 ‘아웨기 소리’라고 한다. 이것은 밧 매는 소리의 하나이다.

3. 타작소리

어이야 흥~아 어이야 호웅~ 어이야 호웅~

<제보자: 김두순(69)>

딱히 가사가 아닌 '어야~흥' 등의 어구를 반복하며 타작을 한다.

4. 그레질 타령(그레 가는 소리-맷돌 가는 소리)

이여~도 이어어어도 이어도 그레 (이여~도)

이 어멍 날 낱을 적에...어데 미역국에...(부분)

<제보자: 김임화(69)>

신세타령식의 노래를 하는 것이므로, 창자 개개인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

5. 창부타령

여)

아니~아니 놀진 못하리라

저산 천리 구십생 년 해년마다 (불러)보리보리

우리에 인생 아무리 잘나도 도리어 인생은 영하드라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진 못하리라

남)

아니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래 살다 죽어도 한세상아 저래 살다 죽어도 한세상아

북망산천 말 물어보자 님 그러서 죽은 무덤이 몇 번이드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아니라 놀진 못하리라

여)

닐리리이 닐리리야 니리리 닐리리리 닐리리리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안즈나 서지는 못서리라

뱅뱅 돌아진채 돌려서 먼 삼신아 굶어

얼 하이여 한푼 두푼 모두 담근 정

정든 님 술값에 다 들어간다

엘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진 못하리라

<제보자: 김두순(71), 김임화(70)>

6. 청춘가

남)

이팔청춘아 그리고 나 같 마음 임 향한 마음 있어도 돈 가정 성화에
(좋다) 내 홀로 가노라

여)

날 데령 가거라 날 모성 가거라 돈 좋고 잘난 돈 (좋~다) 날데령 가거라

남)

이팔이나 청춘에 소년 몸 되고요 우리가 낳아 살면은 (좋~다) 얼마나
살 건고

여)

아~ 날 데령 가거라 날모성 가거라 돈 좋고 잘난 돈 (좋~다) 날데령
가거라

남)

제주도 한라산 어흐 경치만 좋고요 목포야 유달산은 (좋~다) 달구경이

종구나

여)

오동동 도람선에 물길어 놓고요 하이타이 시든 물에 (종~다) 비누만
등등 떠있노라

남)

십오야 밝은 달 우리동네 나 비추고 달속에 은하수 언제면 만나리

여)

청천 하늘에엔 천별도 많고요 요~내 가슴에 (종~다) 수심만 많더란다

남)

살다가 살다가 못살게나 되면은 당신의 벡타이에다(종~다) 목매어 가
리라

여)

우리네 고향은 전라도 제주인테에 임시의 고향은 성산읍 신흥리.

<제보자: 김두순(71), 김임화(70)>

7. 해녀노래

돌아진 등대에 돌아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하영 해(으쌔으쌔)
우리 어멍 날 낳을 적에 어느 바당 미역국 먹영(으쌔으쌔)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한푼 두푼 모은 동전 서방님 술값에만 들어간다(으쌔으쌔)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으쌔으쌔)
우리 배는 소낭배여 놈이네 배는 숙대낭 배다(으쌔으쌔)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으쌔으쌔)
 성님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가 으응~어평합디가(으쌔으쌔)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으쌔으쌔)
 이어도는 저승도여 이어도 문은(으쌔으쌔) 저승문이라 으응~
 이어도 사나(으쌔으쌔) 이어도 사나 으응~ 이어도 사나(으쌔으쌔)
 <제보자: 김임화(70), 강복률(64)>

8. 뱃놀이 노래

에야노 야노야~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제주도 한라산은 영주의 제일봉 백록담 푸른 물은 신선의 경계로다
 에야노 야노야~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제주시의 사라봉엔 전노을 장관인데 용두암 용머리가 날아갈 듯 하구나
 에야노 야노야~(여~차)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서귀포 칠십리엔 해녀들의 노래소리 정방폭포 돈내코가 유정도 하네요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한림에 쌍용굴은 신기도 하구요 푸른숲 해변가엔 사랑이 무르익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대정땅엔 송악산과 산방산이 우뚝한데 가파도에 마라도는 대한의 최남단
 에야노 야노야~에야노 야노 어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표선에는 백사장 민속촌도 자랑인데 정릿골 옛마을엔 제주의 으뜸일세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구좌땅 만장굴은 길이를 알수 없고 비자나무 푸른숲은 세계의 제일이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성산포 일출봉엔 찬란한 아침햇살 우도에 소우는소리 만산을 기약하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성산읍 신평리는 평화스러운 우리마을 목부에 풍물패는 화합도 좋구나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제보자: 김두순(71)>

9. 느영나영

너영 나영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낮에나 밤에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 운다

너영 나영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낮에나 밤에밤에나 참사랑이로 구나

<제보자: 김두순(70), 김임화(69), 강복률(62)>

10. 오돌또기

오돌또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등그데 당실 등그데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가면은 가고요 말면은 말고요 죽신을 신고서야 어디 시집을 가느냐

(등그대 당실 등그데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사랑이란 하거든 임이라고는 말아라 살다가 정 떨어지면 백년의 원수가 되노라

(등그데 당실 등그데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우리가 살면은 몇만년이나 살아가나 막상 살아도 다 한 칠팝십이더라

(등그래 당실 등그데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로 갈까나)

니가 잘났나 이 내 몸이나 잘할란다 너영나영 살아볼면은 우리 둘이
다 잘났구나

(동그네 당실 동그네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시간이 바빠서 하이야(택시)를 탔더니 곰보딱지의 운전수가 연애 걸자
고 하구나

(동그네 당실 동그네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제보자: 김두순(71), 김임화(70), 강복률(63)>

11. 매미(왕자리) 잡는 소리

내려오라 내려오라 졸졸 내려오라 졸졸 내려오라
개똥범벅 허여주마 개똥범벅 허여주마

<제보자: 강복률(62)>

12. 비 그치기를 바라는 소리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장통밭디 물굴람져.

<제보자: 김임화(69)>

13. 여름에 먹감을 때 몸 말리는 소리

물할애비 털어지라 장할애비 털어지라(몸을 탁탁 치면서)

<제보자: 강복률(62)>

14. 이빨 빠진 아이 놀릴 때

하르방뵈저 할망뵈저 앞담크러졌저

<제보자: 강복률(62)>

15. 빠진 이빨 지붕위로 던질 때

묵은니랑 돌아가고 새니랑 돌아오라

<제보자: 김임화(69)>

16. 아픈애기 달래는 소리 (배 쓸어주면서)

어명손은 약손 어명손은약손 (반복)

<제보자: 김임화(69), 강복률(62)>

17.서우제 소리 (신방소리)

아하야~에헤야헤요 이여차~소리에

배올라온다~아아야~에헤야헤요(빠르게) (부분)

<제보자: 김임화(69)>

18.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청한 하늘에는 천별도 많고 요내의 가슴에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 데령 가거라 날 모성가라 돈 좋고 잘난 놈 날 데령가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너영 나영 두리나 등실 허영 낮에낮에랑 밤에랑밤에랑 쌍사랑이로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술집으로 갈적에는 친구도 많고 공동묘지 갈적에는 내혼자드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로 넘어간다

간다더니 왜 왔느냐 간다더니 내팔주고 내사위 삼아 왜 또왔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제보자: 김두순(70), 김임화(69), 강복률(62)>

19. 양산도

에헤여 이여 날 데령 가거라 날 므성 가라
돈 좋고 잘난 놈 날 데령 가거라
아서라 말어라 내가 그리 말어라
아까운 청춘만 다 늙어 진다
(에~이어) 데리고 갈 마음 임 향한 맘 있어도
몸 가득 성화에 내 홀로 간다
엉기엉기덩 덩기덩기덩 예화라 말도 마라
이렇게 좋다가는 딸이나 나게
호적한 골목에 단들이 만나 밀렸다
당겼다 눈 맞아 간다
(아서라 말어라 내가 그리 말어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진다)
제주도 한라산 경치만 좋고
목포에 유달산은 달구경 좋다
세월 세라 뎀이나 흠쳐라 구곡절이 많아~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 진다.
에헤여 이여 날 데령 가거라 날 므성 가거라
돈 좋고 잘난 놈 날 데령 가라
아서라 말어라 내가 그리 말어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진다
(에헤여 이여~) 한라산 중턱에 칠성단 놓고
더러운 남편 죽으라고 삼백육십 기도 한다
엉기엉기덩 덩기덩기덩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 진다
오동동 도랑선에 물 길어 놓고
하이카라 시든 물에 비누만 동동뜬다
아서라 말어라 내가 그리 말어라
아까운 청춘만 다 늙어 진다.

<제보자: 김두순(70), 김임화(69), 강복물(62)>

20. 애기 재우는 노래1

자랑자랑자랑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저래가는 검둥개야 우리애기 재워도라
자랑자랑자랑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랑자랑자랑자랑

<제보자: 강복률(62)>

21. 애기 재우는 노래 2

저래가는 검둥개야 우리애기 재워주라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울지말아그녕 좀자블라
어멍 앵앵울어그녕 젓들랜허지말앙
자랑자랑 자랑자랑자랑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랑자랑자랑 윙이자랑 서방자랑 할망 겨티 잘도잔다 윙이자랑
아이고 착하다 우리애기 좀 잘잘자라이

<제보자: 김두순(70), 김임화(69), 강복률(62)>

22. 아기 재우는 소리 3

윙이자랑 윙이자랑 우리 아기 혼저 자랑
업엉 가공 곱앙 가공 우리 아기 혼저 자랑.....

<제보자: 김정자(여.77)>

23. 장원질소리

흔들만들 흔들만들 종갓집 큰 아이 승보시 허여 드난 장원질 소리에
산천초목이 꺼~딱
흔들만들 흔들만들 흔들만들 동녘집 족은 놈 승보시 허여 드난 장원질
소리에
산천초목이 꺼~딱

<제보자: 오문복(73)>

‘장원질소리’는 원님 행차시에 가마를 지며 하는 노래이다. ‘꺼~딱’ 하는 소리에 가마를 높이 쳐든다. 이는 주의의 시선을 잡으려 하는 행동이다.

■ 조사자 : 현수훈(03), 임이랑(09), 강재연(09), 지기룡(10), 강윤정(10)